

# 가난한 청년들, 내 집은커녕 집 같은 집에 살고 싶다



## 아이의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 DREAM 프로젝트

### 제1부 저출산의 뒷

#### 〈7〉 청년 주거 빈곤율 상승

광주시 북구에 사는 60대 후반 이모씨는 평생을 집 한 채 없이 떠돌았다. 아내와 자녀 셋을 데리고 40년 가까이 2~3년마다 전세와 월세를 찾아 전전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씨는 28세에 결혼해 30대엔 육아, 40~50대엔 자녀교육에 매달리느라 집 장만할 여유가 없었다. 이제 자신의 집을 갖는 꿈은 포기했지만, 자녀들까지 '주포자'(주택 구입을 포기한 사람)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씨처럼 60대 이상 집 없는 가구주 가 광주·전남에만 15만(14만9772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129만6569)의 11.6%로, 10가구 중 1가구는 평생 집 한 채 없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보급률 110%인데...내집 없는 가구 40% 웃돌아  
주택보급률 100%를 넘긴 지 오래다. 2016년 기준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104.5%, 전남은 110.7%에 달한다.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남아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광주·전남의 경우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5년 100%를 넘긴(100.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116.9%를 기록했다. 전남은 2014년 157.5%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해 주택보급률을 낮췄다. 새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 2016년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104.5%, 전남은 110.7%로 조사됐다.

중전 계산법이든 새 계산법이든 광주·전남 주택보급

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2012년 4만1806가구(광주 1만9584, 전남 2만2222), 2013년 2만8515가구(8454, 2만61), 2014년 2만8684가구(1만1056, 1만7628), 2015년 3만3044가구(1만4673, 1만5631), 2016년 4만3779가구(2만2796, 2만983) 등 5년새 광주·전남에 17만3088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미분양은 2014년 3228가구(광주 247, 전남 2981), 2015년 2343가구(735, 1608), 2016년 1799가구(554, 1245) 등이 발생, 주택이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데도, 공급량도 늘어 미분양 몰락까지 발생하는 데도 무주택가구는 40%를 웃돌고 있다.

### 2013년 청년 주거빈곤율 광주 13.1%·전남 11.1% 취업 늦어지고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 희망 사라져 2016년 주택보급률 110%에도 10가구 중 4가구 무주택 60대 이상 11.6% 달해... '주택 포기' 삶 대물림 전전공군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광주의 전체 가구수는 56만9372가구다. 이 중 무주택가구수는 24만4935가구(43%)로 나타났다. 전남은 72만7197가구 중 42%인 30만5935가구가 무주택가구였다.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이다.

무주택가구주의 연령대를 보면 광주의 경우 40대가 5만6808가구(2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만5509가구(22.7%), 50대 4만7663가구(19.5%), 20대 이하 4만1926가구(17.1%), 60대 2만2398가구(9.1%) 순이었다. 전남은 50대 무주택가구주 비율이 20%(6만1250가구)로 가장 높았고, 40대(6만936, 19.9%), 30대(4만8769, 15.9%), 70대(4만362, 13.2%), 60대(3만8694, 12.6%), 20대 이하(2만8239, 9.2%)가 뒤를 이었다.

30~40대는 사회의 주축이지만, 자녀의 육아·교육비 탓에 가계가 쪼들리다보니 주택 구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에 따라 한 가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과 젊은층의 내집갖기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거빈곤율 광주 6.9%, 전남 10.9%  
사는 곳이 '집 아닌 집'이나 법으로 정해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주거빈곤' 가구도 1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증가해 2015년 1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증가해 2015년 1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증가해 2015년 13.1%에 달했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는 다른 계층보다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20~34세)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증가해 2015년 1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증가해 2015년 13.1%에 달했다.

북구와 동구가 월등히 높은 것은 청년 취업이 늦어지면서 대학가 중심으로 청년 1인가구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남의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은 11.1%였다. 신안이 54%로 전남 평균보다 4배가량 높았다. 함평 40.3%, 고흥 33.2%, 담양 26.8%, 장성 23.6%로 이들 지역은 2배를 웃돌았다. 반면 산업이 발달한 전남 동부지역(광양 2.3%, 여수 9.9%, 순천 11.1%)은 주거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년층의 주거빈곤 특징은 고시원·옥탑방 등 '주택 이외의 거주'에 삶의 터전을 잡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5년에는 광주의 가구 중 고시원 등에 사는 비율은 0.2%(732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년 뒤인 2015년에는 1.7%(9538가구)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청년가구의 고시원 등 주거는 4.5%(3847가구)였고, 청년 1인가구는 7.3%(6568가구)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이 밀집한 곳은 북구와 동구로 대학가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양육비·‘독박 육아’ 부담돼 아이 더 원치 않아”

### 자녀 둔 어머니 추가출산 의향 조사

“출산 육아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니 더 축소하면 여자의 몫이죠. 이게 현실이다보니 심리적 우울감도 심하고요. 첫아이를 독박육아 했는데 그러다보니 아이를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첫째 키우기도 힘들어요. 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아이가 한명 더 생기면 분산될데고, 그러다보면 돌다 못해줄 것 같아요. 또 아이가 한 명 있을 때는 작은 집에 살면 되지만 둘이면 더 넓은 집으로 가야되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추가 출산을 포기한 이유들이다.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과 과중한 육아부담으로 인한 추가 출산보다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한 양질의 양육, 경력단절의 우려, 장시간 근로에 따른 자녀돌봄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출산 의향을 묻은 결과, 65.3%는 추가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14.2%는 “아이들 더 원하지만 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출산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예비부모, 영유아를 둔 가구, 초등학교 자

### 56.5% “추가출산 안할 것” 양육비 부담 출산기피 47.1% “국가 양육비 지원땀 더 낫겠다”

녀를 둔 가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그룹별로 300명씩 무작위로 선정해 희망 자녀 수와 추가 출산 의향 여부 등을 설문 조사했다.

이 중 자녀 출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600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출산 의향 질문에 56.5%는 ‘안다’고 했으며, 25.3%만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1명을 둔 부모에서 추가 출산 의향은 각각 32.3%, 34.6%로 높아졌다.

“자녀를 더 희망하지만 추가출산은 하지 않겠다”고 답한 128명(전체 응답자 중 14.2%)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더니, 53.1%가 ‘양육비 부담’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의 병행 어려움’(21.1%), ‘건강이 좋지 않아서’(7.8%), ‘자녀를 혼자 돌보기 힘들어서’(4.7%), ‘나이가 많아서’(4.7%), ‘자녀를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3.1%), ‘구직활동 또는 직장복귀를 하려고’(0.8%) 등이었다.

양육비 부담을 추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방해 요소로 꼽은 비율은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출

별이 가구일수록,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양육비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기피한다는 68명을 상대로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면 추가 출산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봤더니, 47.1%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양육비 지원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에 초점을 맞춰야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연중기획 | DREAM 프로젝트 '아이의 꿈이다'에서는 출생한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에게 들려주는 덕담, 태명에 얽힌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출생 축하방'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idream@kwangju.co.kr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 연회장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